

mahāyāna teaching must know the five sciences, such as the sciences of medicine, language, dialectics, mechanical arts and Buddhism. By studying and learning these bodhisattva can accumulate merits and wisdom. Through this practice bodhisattvas achieve the Buddhahood. So learning the science of medicine is prerequisite for the bodhisattvas.

Also we can find many mind only teachings which a main stream in Mahāyāna buddhism in the Four Tantras. There might be many reasons. One of the possible reasons is that knowing about our mind is essential to cure the illness of the mind and body. This is because the body and the mind are closely connected, and this mind is regarded as the vijñāna in Buddhism. In the Four Tantras it is written: “This vijñāna is driven by karma and klesa.” According to the commentators of the Four Tantra this vijñāna is explained by the ālaya vijñāna.

Today Tibetan medicine is popular around the world. So it's not a regional medicine any more. Also we have to work more to establish Buddhist medicine through Tibetan medicine. This is because in a Buddhist view point we regard medicine as a method of full enlightenment, not just science.

Key Word

Tibetan medicine, Four Tantra, Buddhist medicine

✎ 투고일자 2012.3.14 | 심사일자 2012.4.5 | 게재확정일자 2012.4.9

高麗에 전래된 『開寶藏』에 관한 研究*

유부현
대진대학교

- I. 緒言
- II. 『開寶藏』 관련 기록의 검토
- III. 『開寶藏』의 刊行과 傳來
- IV. 結言

* 이 論文은 2012학년도 대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요약문

본고는 『開寶藏』의 刊行과 高麗에 傳來된 『開寶藏』에 대해서 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表로 정리해서 제시한 다음, 그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본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989년 고려에 전래된 藏經은 開寶藏 本藏(5048卷 481帙), 蓮華心輪廻文偈頌 11卷, 秘藏詮 20卷, 佛賦·詮源歌 1卷으로 구성된 開寶藏(初本: 淳化年間 印出本)으로 추정된다.

둘째, 991년 고려에 전래된 藏經은 開寶藏 本藏(5048卷 481帙), 蓮華心輪廻文偈頌 11卷, 御製秘藏詮 30卷(즉 秘藏詮 20卷, 佛賦·詮源歌 1卷, 秘藏詮幽隱律詩 4卷, 秘藏詮懷感詩 4卷, 秘藏詮懷感廻文詩 1卷), 逍遙詠 11卷으로 구성된 開寶藏(初本: 淳化年間 印出本)으로 추정된다.

셋째, 1019년 고려에 전래된 藏經은 開寶藏 本藏(5048卷 480帙), 蓮華心輪廻文偈頌 11卷, 御製秘藏詮 30卷(즉 秘藏詮 20卷, 佛賦·詮源歌 1卷, 秘藏詮幽隱律詩 4卷, 秘藏詮懷感詩 4卷, 秘藏詮懷感廻文詩 1卷), 逍遙詠 11卷, 緣識 5卷, 開寶藏 續刊 A(宋新譯經 A(“經傳 30

帙”), 續開元錄藏(“未入藏經 27帙”), 三藏集傳(法苑珠林 등)으로 구성된 開寶藏(修訂本: 咸平年間 印出本)으로 추정된다.

넷째, 1022년 고려에 전래된 藏經은 1019년 고려에 전래된 藏經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開寶藏(修訂本: 天禧年間 印出本)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1083년 고려에 전래된 藏經은 이른바 “宋朝大藏經”으로서 開寶藏 續刊 B(咸平 2년(999) 11월 이후 大中祥符 4년(1011)까지의 宋新譯經 B-1), 大中祥符 5년(1011) 5월 이후 天聖 5년(1027) 3월까지의 宋新譯經 B-2), 天聖 5년(1027) 3월 이후 景祐 3년(1036)까지의 宋新譯經 B-3), 景祐 3년(1036) 이후 元豐 2년(1079)까지의 宋新譯經 B-4)로 구성된 開寶藏으로 추정된다.

여섯째, 1085년 고려에 전래된 藏經은 1022년에 전래된 개보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開寶藏 혹은 1083년에 전래된 “宋朝大藏經”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開寶藏으로 추정된다.

주제어

開寶藏, 大藏經, 高麗大藏經

I. 緒言

開寶藏은 주지하듯이宋代開寶4년(971)부터太平興國8년(983)까지 완성된本藏과 이후 지속적으로 간행된續刊을 포함한北宋官版大藏經을 일컫는 것이다. 開寶藏의本藏481帙은開寶4년(971)益州(지금의四川省成都)에서開元錄의入藏錄에 의거하여編次된寫本大藏經을底本으로 하여 그雕造가 시작되어太平興國8년(983)에 완료되었다. 이 때 刻成된경판은開元錄에準據된大藏의1,076部 5,048卷 481帙에 해당되는13萬餘板이었고, 同年에開封의印經院에 안치되어印刷·流通되었다. 이후熙寧4년(1071)3월에印經院은 폐지되었고 同年8월에는經板이顯聖寺 聖壽禪院으로 이관되었다.¹⁾

開寶藏의續刊은 일차적으로咸平元年(998)雲勝의 요청으로咸

1) 柳富鉉, “『開寶勅版大藏經』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25집, 2003, p.116.

平初年(998-)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때에는1,000餘卷의佛典이 속간되었는데, 開元錄에 수록되지 않은貞元錄藏의경전 및宋代4명의三藏이漢譯한宋新譯經 그리고御製와三藏의集傳 등이었다. 이 중貞元錄藏경전의鏤板은景祐3년(1036)에呂夷簡等の 요청으로校訂되기도 하였다. 그리고崇寧4년(1105)惟白은속간가운데宋新譯經과貞元錄藏의경전을 각각“經傳30帙”과“未入藏經27帙”로 지칭하기도 하였다. 이후大中祥符, 天聖, 景祐, 元豐, 紹聖, 政和年間에도 당시에漢譯된新譯經 및 불전들이 지속적으로속간되어大藏에 편입되었다.²⁾

이와 같은開寶藏의本藏과續刊은高麗에 대부분 전래되었는데, 전래된開寶藏의시기와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학계에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³⁾ 그러나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高麗에 전래된開寶藏의시기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전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필자는 먼저開寶藏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조사 검토하여 하나의年表로 작성하여 본 연구의 바탕으로 삼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年表에 근거하여『開寶藏』의 간행과 전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고찰에 얻어진 연구 결과는 이후 고려대장경의 간행과 저본에 대한 연구에 자그마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2) 柳富鉉, “『高麗再雕大藏經』과大藏目錄의構成”, 『書誌學研究』33집, 2006, p.172.

3)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탐구당, 1974, p.57.

李箕永, “高麗大藏經, 그歷史와意義”, 『高麗大藏經』48冊, 1976, p.15.

千惠鳳, 『羅麗印刷術의研究』, 경인문화사, 1980, pp.58-65.

II. 『開寶藏』 관련 기록의 검토

여기에서는 開寶藏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조사 검토하여 다음의 <表 1> 『開寶藏』 關聯 記事와 같이 하나의 年表로 작성하여 본 연구의 바탕으로 삼고자 한다.

<表 1> 『開寶藏』 關聯 記事

開寶藏 關聯 內容		高麗藏 關聯 內容	
		開寶藏의 高麗 傳來	高麗藏의 雕造
971	開寶 4	開寶藏 本藏(5048卷 481帙 ⁴⁾)의 雕造가 시작됨	
983	太平 興國 8	開寶藏 本藏의 雕造가 완료됨 ⁵⁾ 3월, 蓮華心輪迴文偈頌 11卷이 20人의 註解를 거쳐 編聯入藏됨 ⁶⁾	
988	端拱 1	12월, 秘藏詮 20卷, 佛賦·詮源歌 1卷이 56人의 註解를 거쳐 編聯入藏됨	
989	端拱 2 성종 8	11월, 秘藏詮幽隱律詩 4卷, 秘藏詮懷感詩 4卷, 秘藏詮懷感迴文詩 1卷, 逍遙詠 11卷이 12人의 註釋을 거쳐 編聯入藏됨	“復遣僧如可來觀請釋氏大藏經 詔給之”(文獻通考) ⁷⁾ “遣使來貢 詔其使選官侍郎韓 蘭卿 副使兵官郎中魏德柔 並授金紫光祿大夫…先是治 遣僧如可貢表來觀請大藏經 至是賜之 仍賜如可紫衣 令同 歸本國”(宋史 高麗傳 端拱二 年條) ⁸⁾
			“遣使韓彥恭來貢 彥恭表述治 意 求印佛經 詔以藏經 并御 製祕藏鈴 逍遙詠 蓮華心輪 賜之”(宋史 高麗傳 淳化二 年條) ⁹⁾
991	淳化 2 성종 10		
995	至道 1	3월, 緣識 5卷이 印經院에서 開板되어 編聯入藏됨	

998 - ?	咸平 初年	開寶藏 續刊 A{宋新譯經 A(“經傳 30帙”) ¹⁰⁾ , 續開元錄藏 (“未入藏經 27帙”) ¹¹⁾ , 太宗의 御製, 三藏集傳 ¹²⁾ 가 大藏에 編入됨 ¹³⁾ 開寶藏은 咸平初年(998-?)에 한번 校勘됨 ¹⁴⁾		
1011	大中 祥符 4 현종 2	開寶藏 續刊 B-1{咸平 2년 (999) 11월 이후 大中祥符 4년(1011)까지의 宋新譯經(宋新譯經 B-1)}이 祥符錄에 수록됨		“昔顯宗二年…發無上大願誓 刻成大藏經板本 …” ¹⁵⁾
1018	天禧 2	開寶藏은 天禧 2년(1018)에 다시 校勘됨 ¹⁶⁾		
1019	天禧 3 현종 10		“九月 登州言 高麗進奉使禮 賓卿崔元信奏王水口遭風 覆 舟漂失貢物 詔遣內臣撫之 十一月 元信等入見 貢罽錦 衣褥烏漆甲金飾長刀匕首罽 錦鞍馬紵布藥物等 又進中布 二千端求佛經一藏 詔賜經還 布 以元信覆溺匱乏別 賜衣服 繪綵焉”(宋史 高麗傳 天禧三 年條) ¹⁷⁾	
1022	乾興 1 현종 13	開寶藏은 乾興 1년(1022)에 다시 한번 校勘되다가 중단됨 ¹⁸⁾	“韓祚還自宋 帝賜…釋典一 藏”(高麗史 顯宗世家)	
1027	天聖 5	開寶藏 續刊 B-2{大中祥符 5년(1011) 5월 이후 天聖 5년 (1027) 3월까지의 宋新譯經 (宋新譯經 B-2)}이 天聖錄, 景 祐錄에 수록됨		
1029	天聖 7 현종 20			“設藏經道場於會慶殿 飯僧一 萬于棧庭”(高麗史 顯宗世家)
1031	현종 22			“顯宗때 5000軸의 大藏經이 雕造됨” ¹⁹⁾
1036	景祐 3	開寶藏 續刊 B-3{天聖 5년 (1027) 3월 이후 景祐 3년 (1036)까지의 宋新譯經(宋新 譯經 B-3)}이 景祐錄에 수록 됨		
		呂夷簡 등이 “貞元錄經”(續開 元錄藏인 이른바 “未入藏經 27帙”)의 校勘을 요청함 ²⁰⁾		

1051	문종 5			“幸眞觀寺 轉新成華嚴般若經”(高麗史 文宗世家)
1079	元豐 2	開寶藏 續刊 B-4(景祐 3년(1036) 이후 元豐 2년(1079)까지의 宋新譯經(宋新譯經 B-4))이 元豐錄에 수록됨 ²¹⁾		
1083	元豐 6 太康 9 문종 37		“宋送宋朝大藏經 命太子迎宋朝大藏經 置于開國寺 仍設道場”(高麗史 文宗世家)	文宗때 千萬頌의 契經이 雕造됨 ²²⁾
1085	元豐 8 선종 2		“[元豐八年]十二月甲戌 高麗國進封使入乞收買大藏經一藏 華嚴經一部 從之”(續資治通鑑長編 卷362) ²³⁾	
1087	선종 4			“二月甲午 幸開國寺 慶成大藏經”, “三月己未 王如興王寺慶成大藏殿”, “四月庚子 幸歸法寺 慶成大藏經”(高麗史 宣宗世家)
1090	선종 7			선종 7년 이전에 開元錄, 續開元錄(실은 續貞元錄)에 수록된 經律論 및 宋의 新翻經律論 등 총 6000여권이 雕造되었음 ^{24) 25) 26)}
1103	崇寧 2	崇寧 2년에 惟白禪師가 보았던 開寶藏은 “五千四十餘卷 四百八十帙”의 本藏과 續刊이라 할 수 있는 “經傳三十帙 未入藏經 二十七帙”을 더해 537帙이었음 ²⁷⁾		

4) 中村菊之進은 아래와 같은 기록에 의거하여 開寶版의 正藏은 당초 개원록에 수록된 5048권을 481函으로 구성하고, 후에 480函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추정하였다(中村菊之進, “宋開寶版大藏經構成考”, 『密教文化』145, 1984. p.38).

- ① “至乙酉年(985) … 大藏經四百八十一函 五千四十八卷 新讎譯經四十一卷 御製廻文偈頌 …”(入宋求法巡禮行並瑞像造立記, 雍熙 2년(985) 奄然撰)
- ② “[淳化 2년(991)]彦恭奏請大藏經 帝賜藏經四百八十一函 凡二千五百卷 又賜御製秘藏詮 逍遙蓮花心輪選”(高麗史 卷93 韓彥恭列傳)
- ③ “開元釋教錄 … 共五千四十八卷計四百八十一帙盛行於世”(大唐保大乙巳歲續貞元釋教錄, 南唐 保大 3년(945) 恒安集)

④ “顯聖寺印經院近准傳法院印新經賜與日本國成尋 … 杜字號至觀字號共三十字號 計二百七十八卷”(參天台五臺山記, 熙寧 6년(1073) 成尋撰)

⑤ “若通前計大小乘經律論 總五千四十餘卷 四百八十帙 以開元釋教錄為準”(大藏綱目指要錄, 崇寧 4년(1105) 惟白撰)

筆者는 위에 제시된 사료 가운데 淳化 2년 즉 성종 10년(991)에 韓彥恭이 북송에서 가져온 대장경이 “四百八十一函”이었다는 高麗史 卷93 韓彥恭列傳의 내용과 熙寧 6년 즉 문종 27년(1073)에 開寶藏의 正藏(즉 本藏)은 480函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간파할 수 있는 參天台五臺山記의 기록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사료에 의하면 991년 이후 1073년 이전에 開寶藏 本藏은 480帙로 구성되어 있던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991년과 1073년 사이인 咸平 初年(998-?)에 杜(481)函부터 시작되는 개보장의 續刊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때 咸平 初年(998-?) 개보장이 續刊될 때 開寶藏의 正藏(즉 本藏)이 480函으로 재구성된 것이 아닌가 한다.

5) 『開寶藏의 本藏 5048卷의 雕印에 대해서는, 주지하듯이 宋 志磐의 佛祖統紀 卷43, 開寶 4년(971) 條에 ‘高品(高品은 宋代 內侍의 직명이다. 송대의 내시는 7등급으로 나누는데, 高品은 제4급의 내시이다(宋史 卷169 職官志 內侍)인 張從信을 직명으로 益州에 가서 大藏經을 雕造하게 하였다.’ 그리고 同書 太平興國 8(983)年條에 ‘成都에서 이전 太祖의 칙령을 받아 대장경을 만들어 진상한다.’는 기록과 “太平興國 7년(982)에 開封의 太平興國寺의 서원에 譯經院이 세워지고 太平興國 8년(983)에 역경원의 명칭을 傳法院으로 고침과 동시에 그 서쪽에 印經院이 세워졌다”는 『宋會要輯稿·道釋等』등의 기록에 의거해서, 開寶藏의 本藏 5048卷은 開寶 4년(971)에 雕造가 시작되어 太平興國 8년(983)에 완료되고, 刻成된 經板은 同年에 印經院에 안치되어 印刷·流通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반면, 竺沙雅章(竺沙雅章, “宋元版大藏經の系譜”, 『宋元佛教文化史研究』, 汲古書院, 2000. pp.313-315.)은 開寶 5년(972)에 雕造된 『大般若波羅蜜多經』의 實物과 開寶 5년에 勅命으로 佛藏 一藏을 雕造했다’는 佛祖歷代通載의 기록 및 元 念常의 佛祖歷代通載 卷18의 ‘壬申年(開寶 5년)에 직명으로 佛藏 一藏을 간행하게 하니 총 13萬板이다.’ 등에 근거하여 開寶藏의 雕造는 開寶 5년(972)에 시작된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존하는 開寶藏 妙法蓮華經 卷第七은 開寶 4년(971)의 刊記를 갖고 있다.

한편, 竺沙雅章은 雍熙 元年(984)에 入宋한 일본인 승려 奄然이 중국에서 가지고 온 開寶藏에 의거해서 일본에서 轉寫된 寫本에 그대로 옮겨진 原刊記의 분석을 통해 太平興國 2년(977)에 開寶藏 本藏의 雕造가 완성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柳富銘, “『開寶勅版大藏經』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25집, 2003, p.116.)

6) 御製類에 대한 내용들은 大中祥符法寶錄 卷第十八의 기록에 의거한 것이다.

7) 이記事에 대해서 千惠鳳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開寶藏의 刻成 以後 우리나라에 도입된 기록은 중국측 사료인 文獻通考에 고려 成宗 8년(989)에 僧 如可가 와서 大藏經을 請하므로 이를 賜給하였다고 적혀있음이 그 최초의 것이 된다(馬端臨, 文獻通考 卷 325 四裔 高麗). 그러나 宋史 高麗傳에는 그것이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혀있어 一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賜給한 대장경의 刊·寫區分도 확실치 않다. 또한 우리側の 史料에는 그에 관한 기록이 전혀 未傳되고 있다. 따라서 그 기록은 확실한 것이 못되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2년 후인 成宗10년(991)에 印成 大藏經을 輸入해 왔다는 기록이 된다.”(千惠鳳, 初雕大藏經의 現存本과 그 特性, 大同文化研究 제11집, 서울, 成大大同文化研究院, 1976. p.169.).

- 8) 이 記事와 관련하여 고려사 성종 기축8년조에는 “시랑 韓蘭卿과 병부랑중 魏德柔를 송나라에 보내었더니, 송나라 황제가 이들에게 다 광록대부의 품계를 수여하였다”(遣侍郎韓蘭卿 兵部郎中魏德柔 如宋 帝並授光祿大夫)는 기록이 보인다.
- 9) 이 記事와 관련하여, ① 고려사 성종 10년조에는 “어름 4월 경인일에 韓彦恭이 송나라로부터 돌아와 대장경을 바쳤다. 왕이 내전으로 그를 맞아들이고 스님을 초청하여 대장경을 읽게 하고 또 교서를 내려 죄수들을 석방하였다”(韓彦恭 還自宋 獻大藏經 王迎入內殿 邀僧開讀 下教赦)는 기록이 보이고, ② 고려사 韓彦恭列傳에는 “송나라에 사온 사로 갔었는데 송나라에서는 한언공의 태도와 행동이 법도에 맞았으므로 금자광록대부, 검교병부상서검어사대부의 벼슬을 주었다. 한언공이 황제에게 대장경을 줄 것을 청하였다니 황제는 대장경 481函을 주었는데 총 2천 5백 권이나 되었다. 또 御製秘藏詮道遙(詠) 蓮花心輪을 주었다”(韓彦恭 … 成宗時 … 如宋謝恩 宋以彦恭 儀容中度 授金紫光祿大夫 檢校兵部尚書兼御史大夫 彦恭奏請大藏經 帝賜藏經四百八十一函凡二千五百卷 又賜御製秘藏詮道遙蓮花心輪 還)는 기록이 보인다.
- 10) “經傳 30帙”이란 것은 현존 趙城藏과 再雕藏의 “杜”부터 “穀”帙까지의 北宋新譯經(宋新譯經 A)으로 再雕藏에 의해 헤아려 보면 188部 279卷인데, 대체로 譯經院이 설치된 太平興國 7년(982)부터 시작하여 咸平 2년(999)까지 譯經院에서 譯出한 것을 本藏에 連系하여 入藏刊行하고, 咸平 2년(999) 이후 續藏으로서 전반적으로 반사하여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 11) “未入藏經 27帙”은 咸平 初年(998-)에 編入된 이후 天聖 5년(1027) 惟淨에 의해 27帙로 編帙되었고, 景祐 3년(1036)에 呂夷簡 등의 요청으로 校正되었으며, 熙寧年間(1068-1077)에 本藏과 함께 유통되었던 것이다”(呂澂, “宋藏蜀版異本考”, 『大藏經研究彙編』上, 1977. p.201). “未入藏經 27帙”은 아래와 같다.
開元錄에 遺漏된 경전 1帙
開元錄 이후 玄宗, 肅宗, 代宗, 德宗 등 4朝에서 漢譯된 경전 19帙
大唐開元釋教廣品歷章 30卷 · 正元續開元錄 3卷 3帙
新譯大方廣佛華嚴經 40卷 4帙
- 12) 法苑珠林 100卷, 曹溪寶林傳 10卷, 景德傳燈錄 30卷
- 13) “咸平元年上表 乞續編入開元年智昇撰錄後來唐玄肅代德四朝七人三藏所編 并聖朝四人讖譯 并聖製三藏集傳一千餘卷 今取聖旨 集補之”(『寶林傳』卷第二 末尾〈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 73책, 1984, p.617〉)
- 14) 이 記事에 대해서 呂澂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아마도 함평 초년(998-?)에 蜀版 장경은 이미 한번 교감되었던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촉판의 오류가 이때에 이미 10여 곳 개정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誤題 7, 11 총 2곳

錯簡 26, 27, 28 총 3곳

脫文 30, 35, 37, 38, 43, 47, 48, 49, 50 총 9곳

衍文 53 총 1곳

缺本 56, 57 총 2곳

文句를 교정한 것은 다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때의 인본을 촉판 初校本이라 할 수 있다. 이 인본과 함께 유통된 것에는 또 宋代의 新譯經이 있다. … 金皇統大定間(1141-1189) 崔氏刻藏의 전반부 510절은 바로 이 함평본에 의거하여 雕版한 것이다. 때문에 仁宗(1002-1062)의 諱를 避하지 않았고, 또 天禧(1017-1021)때 유행을 금지시켰던 「頻那夜迦經」이 있게 된 것이다.”(呂澂, “宋藏蜀版異本考”, 『大藏經研究彙編』上, 1977. p.201).

- 15) “昔顯宗二年契丹主大舉兵來征 顯祖南行避難 丹兵猶屯松岳城不退 於是乃與君臣 發無上大願誓刻成大藏經板本 然後丹兵自退 然則大藏一也 先後雕鏤一也 君臣同願亦一也”(李奎報, 大藏刻板君臣祈告文)
- 16) “天禧二年 詔左僕射兼中書侍郎平章事王欽若 擇藏經之精妙者 鑿校鏤板模印之”(景祐法寶總錄 권13(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1984. 73책, p.559)).
- 17) 이 記事와 관련하여 고려사에는 현종 10년 8월에 “崔元信과 李守和 등을 宋에 사신으로 보내었고”(遣禮賓卿崔元信 李守和 如宋貢正), 이듬해 5월에 이들이 “사절로서 나라의 체면을 더럽혔다 하여 귀양을 보낸다(以崔元信 李守和 奉使汚辱 並流之)”는 기록이 나온다.
- 18) ① “乾興元年 詔惟淨等校大藏經”(『景祐法寶總錄』乾興元年條의 記事(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1984. 73책, p.596)).
② “乾興元年 春正月 詔梵學筆受澄珠文一綴文簡長行肇 證義重泉善慈 就本寺普賢閣同校大藏經 仍取天壽皇建二院經本參對 三藏惟淨管勾 會眞宗升遐 罷其事”(景祐法寶總錄 권17(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1984. 73책, p.576)).
- 19) “顯祖則雕五千軸之秘藏 文考乃鏤千萬頌之契經 正文雖布於近遐 章疏或幾乎墜失”(義天撰, 代宣王諸宗教藏雕印疏)
- 20) “…呂夷簡等請校正元錄經鏤板 詔從之”(景祐法寶總錄, 景祐 3년條의 記事(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 1984. 73책, p.599)).
- 21) 이 新譯經들은 元豐傳法院新編法寶錄(지금은 失傳되었지만 景祐錄 이후의 譯經을 수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經錄임)에 준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中村菊之進, “宋開寶版大藏經構成考”, 『密教文化』145. 1984. p.40).
- 22) 註19) 참조.
- 23) 李富華, 『漢文佛教大藏經研究』, 宗教文化出版社, 2003. p.120. 참고로 筆者가 확인한 原文에는 “又乞買刑法文書 不許”라는 내용이 더 있다. 즉 元豐 8년에 大藏經 一藏과

III. 『開寶藏』의 刊行과 傳來

여기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表 1> 『開寶藏』 關聯 記事 가운데 『開寶藏』의 刊行과 傳來에 관한 사실을 추출하여 다음의 <表 2> 『開寶藏』의 刊行과 傳來를 작성하고자 한다. 그러한 후에 이 표에 근거하여 『開寶藏』의 간행과 전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華嚴經 一부가 고려에 收買되어 들어 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생각된다.
- 24) “敬白諸善友緣本國崇奉佛教日已久矣 其開元釋教錄智昇所撰, 貞元續開元釋教錄圓照所撰兩本所收經律論等 洎大宋新翻經律論總六千來卷 并已雕鏤施行訖 自古聖 □”(義天撰, 寄日本國諸法師求集教藏疏(小野玄妙, 『佛書解說大辭典』別卷, 東京, 大同出版社, 1936. p.704에서 再引用)
- 25) ① 續貞元錄은 五代 南唐의 恒安이 保大 3년(945)에 편찬한 목록이다. 이 목록에는 開元錄 이후 貞元錄에서 새로 입장된 불전과 開元錄, 貞元錄에서 遺漏된 불전 총 140部 413권이 藁함부터 富함까지 모두 43帙로 나뉘어 입장되어 있다. ② 이 續貞元錄藏 경전은 南唐 昇元年間(937-943)에 恒安이 五臺山 주변에서 수집한 것이다(呂激, 『契丹大藏經略考』, 『大藏經研究彙編』(上), 大乘文化出版社, 1977. p.213).
- 26) ① 선종 7년(1090)은 寄日本國諸法師求集教藏疏의 撰者인 義天이 教藏의 목록인 新編諸宗教藏總錄을 편찬한 해이다. 따라서 선종 7년(1090) 이전에 寄日本國諸法師求集教藏疏가 지어졌을 것이고, 이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의 상황도 선종 7년(1090) 이전의 상황으로 추정된다. ② 義天은 文宗 9년(1055)에 태어나 文宗 19년(1065)에 출가하였고 文宗 21년(1067)에 僧統이 되었다. 宣宗 2년(1085) 4월에 宋으로 유학을 떠나 宣宗 3년(1086) 5월 28일에 귀국하여 興王寺 住持가 되었으며, 이후 教藏都監을 설치하고 教藏을 간행해 냈다. 47세의 나이로 肅宗 6년(1101)에 임직하였고 大覺國師의 시호를 받았다.
- 27) “… 若通前計大小乘經律論 總五千四十餘卷 四百八十帙 以開元釋教錄爲准 則今撮略品目所集也 其餘隨藏添賜經傳三十帙 未入藏經二十七帙 天下寺院藏中 或有或無 印經官印板却足故 未錄略在 知者可鑒耳 … 崇寧二年癸未春得上旨 游天台中秋後三日 至婺州金華山智者禪寺 閱大藏經 仲冬一日丁丑 援筆撮其要義 次年甲申仲春三日丁未畢之 計二十餘萬字 … 崇寧四年乙酉歲上元日佛國禪師惟白謹述”(惟白禪師가 崇寧 4년(1105)에 저술한 『大藏綱目指要錄』의 卷第八 “尼傳” 다음에 기재된 내용 및 跋尾의 내용(『중화대장경』56책, p.245의 상단 및 p.248의 중단). 본 표에서 기술된 “崇寧 2년 당시에 惟白禪師가 보았던 開寶藏”은 유백선사가 崇寧年間 東京(開封)의 法雲禪寺 住持로 있을 때 婺州 金華山 智者禪寺에서 閱讀한 開寶藏이다(方廣鎬, “關於『開寶藏』刊刻的幾個問題”, 『法音』第1期, 2011. p.3).

<表 2> 『開寶藏』의 刊行과 傳來

年代	『開寶藏』의 刊行과 傳來에 관한 기록 내용
971	開寶 4 開寶藏 本藏(5048卷 481帙)의 雕造가 시작됨
983	太平 興國 8 開寶藏 本藏의 雕造가 완료됨 蓮華心輪迴文偈頌 11卷이 20人的 註解를 거쳐 編聯入藏됨
988	端拱 1 秘藏詮 20卷, 佛賦·詮源歌 1卷이 56人的 註解를 거쳐 編聯入藏됨
989	端拱 2 秘藏詮幽隱律詩 4卷, 秘藏詮懷感詩 4卷, 秘藏詮懷感迴文詩 1卷, 逍遙詠 11卷이 12人的 註釋을 거쳐 編聯入藏됨. “復遣僧如可來親請釋氏大藏經 詔給之”(文獻通考) “高麗遣使來貢 詔其使選官侍郎韓蘭卿 副使兵官郎中魏德柔 並授金紫光祿大夫 … 先是治遣僧如可貢表來親請大藏經 至是賜之 仍賜如可紫衣 令同歸本國”(宋史 高麗傳 端拱二年條)
991	淳化 2 聖宗 10 “遣使韓彥恭來貢 彥恭表述治意 求印佛經 詔以藏經 并御製祕藏詮 逍遙詠 蓮華心輪 賜之”(宋史 高麗傳 淳化二年條)
995	至道 1 緣識 5卷이 印經院에서 開板되어 編聯入藏됨
998	咸平 1 開寶藏 續刊 A(宋新譯經 A(“經傳 30帙”), 續開元錄藏(“未入藏經 27帙”, 太宗 御製, 三藏集傳)가 大藏에 編入됨
1011	大中 祥符 4 開寶藏은 咸平 初年(998-?)에 한번 校勘됨 開寶藏 續刊 B-1(咸平 2년(999) 11월 이후 大中祥符 4년(1011)까지의 宋新譯經(宋新譯經 B-1))이 祥符錄에 수록됨 “昔顯宗二年 … 發無上大願誓刻成大藏經板本 …”
1018	天禧 2 開寶藏은 天禧 2년(1018)에 다시 校勘됨
1019	天禧 3 聖宗 10 “九月 登州言 高麗進奉使禮賓卿崔元信奏王水口遭風 覆舟漂失貢物 詔遣內臣撫之 十一月 元信等入見 貢屬錦衣褥烏漆甲金飾長刀匕首屬錦鞍馬紵布藥物等 又進中布二千端求佛經一藏 詔賜經選布 以元信覆溺置乏別 賜衣服綵線焉”(宋史 高麗傳 天禧三年條)
1022	乾興 1 開寶藏은 乾興 1년(1022)에 다시 한번 校勘되다가 중단됨 “韓祚還自宋 帝賜 … 釋典一藏”(高麗史 顯宗世家)
1027	天聖 5 開寶藏 續刊 B-2(大中祥符 5년(1011) 5월 이후 天聖 5년(1027) 3월까지의 宋新譯經(宋新譯經 B-2))이 天聖錄, 景祐錄에 수록됨
1029	天聖 7 聖宗 20 “設藏經道場於會慶殿 飯僧一萬于毬庭”(高麗史 顯宗世家)
1036	景祐 3 開寶藏 續刊 B-3(天聖 5년(1027) 3월 이후 景祐 3년(1036)까지의 宋新譯經(宋新譯經 B-3))이 景祐錄에 수록됨 呂夷簡 등이 “貞元錄經”(續開元錄藏인 이른바 “未入藏經 27帙”)의 校勘을 요청함
1079	元豐 2 開寶藏 續刊 B-4(景祐 3년(1036) 이후 元豐 2년(1079)까지의 宋新譯經(宋新譯經 B-4))이 元豐錄에 수록됨
1083	元豐 6 聖宗 37 “宋送宋朝大藏經 命太子迎宋朝大藏經 置于開國寺 仍設道場”(高麗史 文宗世家)
1085	元豐 8 聖宗 2 “[元豐八年]十二月甲戌 高麗國進封使入乞收買大藏經一藏 華嚴經一部 從之”(續資治通鑑長編 卷362) ²⁸⁾
1087	聖宗 4 “二月甲午 幸開國寺 慶成大藏經” “三月己未 王如興王寺 慶成大藏殿” “四月庚子 幸歸法寺 慶成大藏經”(高麗史 宣宗世家)
1232	高宗 19 符仁寺에 所藏되어오던 初雕藏의 經板이 燬滅됨
1236	高宗 23 再雕藏 刊行 始作
1251	高宗 38 再雕藏 刊行 完了

먼저 개보장의 간행에 대한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71년 : 開寶藏 本藏(5048卷 481帙)의 雕造가 시작되었다.

983년 : 開寶藏 本藏의 雕造가 완료되었다.

983년 : 3월에 蓮華心輪廻文偈頌 11卷이 20人的 註解를 거쳐 編聯入藏되었다.

988년 : 12월에 秘藏註 20卷, 佛賦·詮源歌 1卷이 56人的 註解를 거쳐 編聯入藏되었다.

989년 : 11월에 秘藏註幽隱律詩 4卷, 秘藏註懷感詩 4卷, 秘藏註懷感廻文詩 1卷, 逍遙詠 11卷이 12人的 註釋을 거쳐 編聯入藏되었다.

995년 : 3월에 緣識 5卷이 印經院에서 開板되어 編聯入藏되었다.

998-1003년 : 開寶藏 續刊 A{宋新譯經 A(“經傳 30帙”), 續開元錄藏 (“未入藏經 27帙”, 太宗의 御製, 三藏集傳)가 開寶藏에 編入되었다.

1011년 : 開寶藏 續刊 B-1{咸平 2년(999) 11월 이후 大中祥符 4년(1011)까지의 宋新譯經(宋新譯經 B-1)이 祥符錄에 수록되었다.

1018년 : 開寶藏은 天禧 2년(1018)에 다시 校勘되었다.

1022년 : 開寶藏은 乾興 1년(1022)에 다시 한번 校勘되다가 중단되었다.

1027년 : 開寶藏 續刊 B-2{大中祥符 5년(1011) 5월 이후 天聖 5년(1027) 3월까지의 宋新譯經(宋新譯經 B-2)이 天聖錄, 景祐錄에 수록되었다.

28) 李富華, 『漢文佛教大藏經研究』, 宗教文化出版社, 2003. p.120. 참고로 筆者가 확인한 原文에는 “又乞買刑法文書 不許”라는 내용이 더 있다. 즉 元豐 8년에 大藏經 一藏과 華嚴經 一部가 高麗에 收買되어 들어 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생각된다.

1036년 : 開寶藏 續刊 B-3{天聖 5년(1027) 3월 이후 景祐 3년(1036)까지의 宋新譯經(宋新譯經 B-3)이 景祐錄에 수록되었다.

1036년 : 呂夷簡等이 “貞元錄經”(續開元錄藏인 이른바 “未入藏經 27帙”)의 校勘을 요청했다.

1079년 : 開寶藏 續刊 B-4{景祐 3년(1036) 이후 元豐 2년(1079)까지의 宋新譯經(宋新譯經 B-4)이 元豐錄에 수록되었다.

다음으로 개보장이 高麗에 전래된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89년 : 高麗에서 韓蘭卿, 魏德柔를 보내 宋에 조공하였다. 이때 宋은 이전에 大藏經을 요청했던 僧 如可에게 大藏經을 賜給하였다.

991년 : 韓彥恭이 宋에서 開寶藏 및 御製秘藏銓, 逍遙詠, 蓮華心輪을 받아왔다.

1019년 : 11월에 崔元信이 宋나라에 中布 二千端을 받치고 佛經 一藏을 구하니, 宋에서 大藏경을 賜給하고 中布는 돌려주었다.

1022년 : 韓祚가 宋으로부터 釋典 一藏을 받아 왔다.

1083년 : 宋에서 宋朝大藏經을 보내주었다.

1085년 : 12월에 高麗가 宋에 사신을 보내 大藏經 一藏과 華嚴經 一部를 구매하기를 청하니, 허락하였다. 또 형법문서도 구매하기를 청했지만 불허하였다.

끝으로 이상과 같이 살펴본 사실에 의거하여, 高麗에 전래된 개보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表로 정리하면 다음의 <表 3> “高麗에 전래된 『開寶藏』의 내용”과 같다

〈表 3〉高麗에 전래된 『開寶藏』의 내용

傳來 時期		『開寶藏』의 내용	
①	989 성종 8	端拱 2	開寶藏 本藏(5048卷 481帙 ²⁹), 蓮華心輪迴文偈頌 11卷, 秘藏詮 20卷, 佛賦·詮源歌 1卷으로 구성된 開寶藏(初本: 端拱年間 印出本)
②	991 성종 10	淳化 2	開寶藏 本藏(5048卷 481帙), 蓮華心輪迴文偈頌 11卷, 御製秘藏詮 30卷(즉 秘藏詮 20卷, 佛賦·詮源歌 1卷, 秘藏詮幽隱律詩 4卷, 秘藏詮懷感詩 4卷, 秘藏詮懷感迴文詩 1卷), 逍遙詠 11卷으로 구성된 開寶藏(初本: 淳化年間 印出本)
③	1019 天禧 3 현종 10	天禧 3	開寶藏 本藏(5048卷 480帙), 蓮華心輪迴文偈頌 11卷, 御製秘藏詮 30卷(즉 秘藏詮 20卷, 佛賦·詮源歌 1卷, 秘藏詮幽隱律詩 4卷, 秘藏詮懷感詩 4卷, 秘藏詮懷感迴文詩 1卷), 逍遙詠 11卷, 緣識 5卷, 開寶藏 續刊 A(宋新譯經 A(“經傳 30帙”), 續開元錄藏(“未入藏經 27帙”), 三藏集傳(法苑珠林 등))으로 구성된 開寶藏(修訂本: 咸平年間 印出本)
④	1022 현종 13	乾興 1	위의 개보장과 구성이 동일한 開寶藏(修訂本: 天禧年間 印出本)
⑤	1083 문종 6 문종 37	元豐 6	이른바 “宋朝大藏經”으로서 開寶藏 續刊 B(咸平 2년(999) 11월 이후 大中祥符 4년(1011)까지의 宋新譯經 B-1), 大中祥符 5년(1011) 5월 이후 天聖 5년(1027) 3월까지의 宋新譯經 B-2), 天聖 5년(1027) 3월 이후 景祐 3년(1036)까지의 宋新譯經 B-3), 景祐 3년(1036) 이후 元豐 2년(1079)까지의 宋新譯經 B-4)로 구성된 開寶藏
⑥	1085 선종 2	元豐 8	1022년에 전래된 개보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開寶藏 혹은 1083년에 전래된 “宋朝大藏經”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開寶藏

한편 呂澄³⁰⁾은 “宋藏蜀版異本考”³¹⁾에서 開寶藏의 板本을 “淳化本”, “咸平本”, “天禧本”, “熙寧本”, “崇寧本” 등 5種으로 구분하고 있다. 참고로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개 蜀版은 太平興國 8년(983)에 관각이 완료되어 京師의 印經院으로 보내진 이후 여러 차례 改訂되었고, 또 여러 번 入藏新籍을 추가했기 때

29) 註4) 참조

30) 呂澄(1896-?)은 중국의 불교학자이다. 1914년 南京의 金陵刻經處 佛學研究部에서 歐陽竟無에 게 佛學을 배웠다. 1918년 歐陽竟無를 도와 남경에서 支那內學院을 운영하였다.

31) 呂澄, “宋藏蜀版異本考”, 『大藏經研究彙編』(臺北: 大乘文化出版社), 1977, pp. 195-205.

문에 前後 人本の 내용과 규모가 때에 따라 바뀌게 되었다. … 적게는 異本이 5종이나 되니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1) 淳化本

蜀版에서는 五代의 寫經이 付梓되고 미처 詳訂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류가 매우 많다. 순화간에 인출된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 本은 淳化 2년(991)에 고려에 전해졌고, 고려 顯宗때(1010) 麗藏 初雕의 正本이 되었다. 뒷날 高宗때 대장경판을 중간할 적(高宗23년(1236))에 守其 등이 다시 校勘本으로 이용하여 宋本으로 불렀는데, 대략 그 오류를 50여 곳 들어 「新雕大藏校正別錄」에 수록하였다.

(2) 咸平本

아마도 함평 초년(998-?)에 촉판 장경은 이미 한번 교감되었던 것이다. 앞에서 든 촉판의 오류가 이때에 이미 10여 곳 개정되었다. … 文句를 교정한 것은 다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때의 人本을 촉판 初校本이라 할 수 있다. 이 人本과 함께 유통된 것에는 또 宋代의 新譯經이 있다. 이것은 雍熙 2년(985)의 板刻을 시작으로 하여 함평 2년(999)까지 한역된 불경의 관각에 이르기까지 279권이나 되었다. 雲勝이 일찍이 표문을 올려 開元錄 이후의 경을 編次하기를 청하여, 마침내 杜字부터 靛字에 이르는 30질을 編次하게 되었던 것이다. 金 皇統大定間(1141-1189) 崔氏 刻藏의 전반부 510질은 바로 이 함평본에 의거하여 雕版한 것이다. 때문에 仁宗(1002-1062)의 諱를 避하지 않았고, 또 天禧(1017-1021)때 유행을 금지시켰던 「頻那夜迦經」(筆者註: 金剛薩埵說頻那夜迦天成儀軌經)이 있게 된 것이다.

(3) 天禧本

촉판이 처음 교정된 후 또 天壽院· 皇建院 두 곳의 舊經을 취해서 다시

교감하였다. 천희때(1017-1021)에 이르러서는 촉판에 원래부터 있었던 오류 50여 곳이 대부분 교정되었다. … 이때에 인출된 것을 촉판 再校本이라 할 수 있다. … 또 一本은 乾興元年(1022)에 고려에 전입되어 文宗때 또한 이에 의거하여 고려 초조본의 일부분을 補正하였다.

(4) 熙寧本

희녕 4년(1071)에 禁中에서 인경원을 해체하고, 대장경판은 顯聖寺 聖壽禪院으로 보내어 印造케 하였다. 당시에 編帙된 경판은 단지 개원록에 수록된 480질과 宋代新譯 30질 도합 5,425권이였다. 400여 질의 촉판은 乾興(1022) 이후로 더 이상의 교정은 없었다. 그러므로 이 때에 인출된 것을 校定本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포된 것으로는 貞元錄續入藏經이 있다. 이 또한 함평초년에 운승이 요청하여 編刻한 것이다.

天聖 5년(1027) 惟淨이 「天聖釋教總錄」을 편찬하면서, 다시 貞元原錄의 차례를 대충 고치고, 「개원록」이후의 경을 續編하여 27질로 나누었다. 景祐 3년(1036)에 이르러 呂夷簡 등이 다시 요청하여 정원록에 수록된 경의 刻版을 교감하여 고쳤다. 이같이 여러 번 編改를 거친 貞元入藏經은 희녕때까지도 아직 完刻하지를 못하고 하루아침에 散帙되어 字號도 붙이지 못했다. 이때의 촉판 인본은 … 원풍 6년(1083)에 고려에 유입되어, 初雕麗藏의 缺陷을 補刻하는데 이용되었다. 守其의 「新雕大藏校正別錄」권30에서 언급한 宋本 貞元錄經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5) 崇寧本

희녕 이후 蜀版印本은 더 이상의 교정은 없었고, 단지 함께 딸려 있던 貞元續入藏經이 崇寧初(1102-)에 이미 전부 判각되어 비록 여전히 字號는 붙여지지 못했지만 대장경의 끝에 附加되는 것이 定例가 되었다.

惟白은 「大藏綱目指要錄」에서 “대장경은 전부 480질인데 개원록을 준 거로 한 것이고, 그 나머지는 대장경에 딸려서 덧붙여진 경전이 30질(이것은 宋代新譯을 가리킨다)이고, 아직 대장경에 입장되지 못한 경이 27질이다(이것은 貞元續入藏經을 가리킨다).”라고 언급했다. … 이 외에 함평 2년부터 이후로 나온 宋代新譯 불전은 祥符·天聖·景祐 등 역대로 著錄이 있었고 또한 매년 判각되었지만 散帙된 채 單卷으로 통행되어 政和年間(1111-1117)까지도 계속되었다.

IV. 結言

본고는 『開寶藏』의 刊行과 高麗에 傳來된 『開寶藏』에 대해서 먼저 관련기록을 검토하여 表로 정리해서 제시한 다음, 그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본 것이다. 이를 요약하여 結言으로 대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989년 고려에 전래된 藏經은 開寶藏 本藏(5048卷 481帙), 蓮華心輪廻文偈頌 11卷, 秘藏詮 20卷, 佛賦·詮源歌 1卷으로 구성된 開寶藏(初本: 淳化年間 印出本)으로 추정된다.

둘째, 991년 고려에 전래된 藏經은 開寶藏 本藏(5048卷 481帙), 蓮華心輪廻文偈頌 11卷, 御製秘藏詮 30卷{즉 秘藏詮 20卷, 佛賦·詮源歌 1卷, 秘藏詮幽隱律詩 4卷, 秘藏詮懷感詩 4卷, 秘藏詮懷感廻文詩 1卷}, 逍遙詠 11卷으로 구성된 開寶藏(初本: 淳化年間 印出本)으로 추정된다.

셋째, 1019년 고려에 전래된 藏經은 開寶藏 本藏(5048卷 480帙),

蓮華心輪廻文偈頌 11卷, 御製秘藏詮 30卷(즉 秘藏詮 20卷, 佛賦·詮源歌 1卷, 秘藏詮幽隱律詩 4卷, 秘藏詮懷感詩 4卷, 秘藏詮懷感廻文詩 1卷), 逍遙詠 11卷, 緣識 5卷, 開寶藏 續刊 A{宋新譯經 A(“經傳 30帙”), 續開元錄藏(“未入藏經 27帙”), 三藏集傳(法苑珠林 등)}으로 구성된 開寶藏(修訂本: 咸平年間 印出本)으로 추정된다.

넷째, 1022년 고려에 전래된 藏經은 1019년 고려에 전래된 藏經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開寶藏(修訂本: 天禧年間 印出本)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1083년 고려에 전래된 藏經은 이른바 “宋朝大藏經”으로서 開寶藏 續刊 B(咸平 2년(999) 11월 이후 大中祥符 4년(1011)까지의 宋新譯經 B-1), 大中祥符 5년(1011) 5월 이후 天聖 5년(1027) 3월까지의 宋新譯經 B-2), 天聖 5년(1027) 3월 이후 景祐 3년(1036)까지의 宋新譯經 B-3), 景祐 3년(1036) 이후 元豐 2년(1079)까지의 宋新譯經 B-4)로 구성된 開寶藏으로 추정된다.

여섯째, 1085년 고려에 전래된 藏經은 1022년에 전래된 개보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開寶藏 혹은 1083년에 전래된 “宋朝大藏經”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開寶藏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 小野玄妙, 『佛書解說大辭典』. 別卷. 東京, 大同出版社, 1936.
- 林慮山, “北宋開寶藏『大般若經』初印本の發見”. 現代佛學. 1961年 第2期.
- 胡振祺, “山西省文物管理工作委員會收集到六件宋藏”. 文物. 1965年 第5期.
-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탐구당, 1974.
- 李筌永, “高麗大藏經, 그 歷史와 意義”, 『高麗大藏經』48冊. 1976.
- 呂澂, “宋藏蜀版異本考”. 「大藏經研究彙編」(上). 大乘文化出版社, 1977.
- 千惠鳳, 『羅麗印刷術의 研究』. 경인문화사, 1980.
- 中村菊之進, “宋開寶版大藏經構成考”. 『密教文化』145. 1984.
- 童璋, “北宋『開寶大藏經』雕印考釋及目錄還原”. 書目文獻出版社, 1991.
- 方廣錫, 佛教大藏經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1.
- 胡振祺, “山西發現의 三卷『開寶藏』”. 文物季刊. 1992年 第1期.
- 羅炤, “《契丹藏》與《開寶藏》之差異”. 文物. 1993年 第8期.
- 竺沙雅章, “宋元版大藏經の系譜”. 『宋元佛教文化史研究』. 汲古書院, 2000.
- 李富華, “關於『遼藏』의 研究”. 佛教與歷史文化. 宗教文化出版社, 2001.
- 柳富鉉, “『高麗大藏經』의 底本과 板刻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2권 제3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1.
- 柳富鉉, “『開寶勅版大藏經』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25집, 2003.
- 柳富鉉, “『高麗 再雕大藏經』과 大藏目錄의 構成”, 『書誌學研究』33집, 2006.

A Study on the *Tripitaka Kai bao* Introduced in Goryeo

Yoo, Boo-hyun
Daejin Univ.

This study shows that the relevant records about the publication of *Tripitaka Kai bao* and how it was passed down in Goryeo have been examined, and this is presented with a table. Also its conditions are organized in a clear manner. The argument includes the following.

Firstly, it is estimated that the Janggyung handed down in Goryeo in 989 is the *Tripitaka Kai bao* made up of bonjang of *Tripitaka Kai bao*, Yeonhwashimryunhwoimoongesong, Bijangjeon, Bulbu, Jeonwonga etc.

Secondly, it is presumed that the Janggyung passed down in Goryeo in 991 is the *Tripitaka Kai bao* composed of bonjang of *Tripitaka Kai bao*, Yeonhwashimryunhwoimoongesong, Uijebijanggeon (i.e. Bijanggeon, Bulbu, Jeonwonga, Bijangjeonyueuneulsi, Bijangjeonwhoigamsi, Bijangjeonwhoigamwhoimoonsi), and Soyoyoung etc.

Thirdly, it seems that the Janggyung which came down in Goryeo in 1019 is the *Tripitaka Kai bao* comprised of bonjang of *Tripitaka Kai bao*, Yeonhwashimryunhwoimoongesong, Uijebijanggeon (i.e. Bijanggeon, Bulbu, Jeonwonga, Bijangjeonyueuneulsi, Bijangjeonwhoigamsi, Bijangjeonwhoigamwhoimoonsi) Soyoyoung, yeonsik, and sokgan A of *Tripitaka Kai bao* (Songshinyeokgyung A, Sokgaewonrokjang, Samjangjipjeon).

Fourthly, it is assumed that the Janggyung handed down in Goryeo in 1022 is the *Tripitaka Kai bao* consisting of identical contents to the Janggyung which came down in Goryeo in 1019.

Fifthly, it appears that the Janggyung passed down in Goryeo in 1083 is the *Tripitaka Kai bao* made up of sokgan B of the *Tripitaka Kai bao* as the so-called “Songjodaejanggyung”.

Finally, it is likely that the Janggyung come down in Goryeo in 1085 is the *Tripitaka Kai bao* composed with the same contents as the *Tripitaka Kai bao* passed down in 1022 or the “Songjodaejanggyung” handed down in 1083.

Key Word

Tripitaka Kai bao, Tripitaka, Tripitaka Koreana

✎ 투고일자 2012.3.9 | 심사일자 2012.4.3 | 게재확정일자 2012.4.9